

---

# 서울대학교병원의 방사선치료 환자 통계에 관한 고찰

서울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

윤일규, 박장필, 최병돈, 박진홍, 박홍득

---

**목 적** : 본원에 내원한 방사선치료 환자의 성별, 연령별, 부위별, 지역별 분포를 알아보고자 한다.

**대상 및 방법** : 1979년 2월 7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2년 11개월 간 본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26,500명을 대상으로 성별, 연령별, 부위별, 지역별로 분류하였으며, 이 자료를 근거로 통계프로그램(PC-SAS)에 입력하여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.

**결 과** : 전국에서 내원한 방사선 치료 환자 26,500명 중 남녀 성비는 남자가 15,146명(57.2%), 여자가 11,354명(42.8%)으로 나타났으며, 연령 분포는 20세 미만 2,477명(9.3%), 20~30대 4,055명(15.3%), 40~60대 17,855명(67.4%), 70대 이상이 2,113명(8.0%)로 나타났다. 부위별로 살펴보면 두경부암 6,840명(25.8%), 흉부암 3,955명(14.9%), 자궁경부암 2,881명(10.9%), 직장암 1,335(5.0%), 유방암 1,275명(4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지역적 분포로는 서울·경기 지역이 17,708명으로 전체의 66.8%를 차지했으며, 그 외 기타 지역들은 약 3~4% 정도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.

**결 론** : 위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,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 암 순위는 남자가 위, 간, 폐암 그리고 여자가 위, 유방, 자궁경부 순이지만, 본 자료의 결과는 남자가 폐, 두경부, 직장 그리고 여자가 자궁경부, 유방, 두경부 순으로 나타나 각종 보고서에 발표되는 통계와는 차이가 있었다. 둘째,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환자가 10% 이상으로서, 이는 본원이 소아전문병원을 운영하는데 기인함을 알 수 있다. 셋째, 부위별로는 두경부암, 흉부암, 자궁경부암 순이나,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병 순위는 위암, 폐암, 간암으로 이는 방사선치료 대상의 차이로 사료된다. 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·경인지역이 약 70%로, 본원이 서울에 위치함에 따른 것을 알 수 있다.